

# 한국의 중장기 미래전략

국가안보의  
새로운  
방향 모색

김상배·신범식·신성호·이승주·이신화·조화순·황지환 지음

# FUTURE

인간사랑

|            |                               |           |
|------------|-------------------------------|-----------|
| <b>제1부</b> | <b>외교안보의 중장기 미래전략</b>         | <b>21</b> |
| 제1장        | 중장기 외교안보 전략의 과제   <b>김상배</b>  | 23        |
| I.         | 머리말                           | 23        |
| II.        | 복합 세력망의 구조적 공백 찾기             | 27        |
| III.       | 중개-연대-설계의 네트워크 전략             | 34        |
| 1.         | 중개의 네트워크 전략                   | 35        |
| 2.         | 연대의 네트워크 전략                   | 39        |
| 3.         | 설계의 네트워크 전략                   | 42        |
| IV.        | 열린 국익 및 통일 모델의 추구             | 46        |
| V.         | 맺음말                           | 53        |
| 제2장        | 유엔 안보외교의 미래전략   <b>이신화</b>    | 61        |
| I.         | 서론                            | 61        |
| II.        | 세계분쟁의 변천 및 유엔의 안보 아이디어와 역할평가  | 65        |
| III.       | 안보의 결의안과 부결안에 따른 유엔의 안보 역할 고찰 | 81        |
| IV.        | 중견국 한국의 안보외교 과제 및 중장기 전략      | 88        |
| V.         | 결론                            | 100       |

|            |                        |            |
|------------|------------------------|------------|
| <b>제2부</b> | <b>군사·경제안보의 변환과 복합</b> | <b>109</b> |
|------------|------------------------|------------|

|      |                              |     |
|------|------------------------------|-----|
| 제3장  | 국방안보의 미래: 초고령·저출산 인구문제를 중심으로 |     |
|      | <b>신성호</b>                   | 111 |
| I.   | 서론                           | 111 |
| II.  | 한반도 안보환경과 도전                 | 113 |
| III. | 인구변화와 미래 국방력 소요              | 117 |
| 1.   | 국방개혁과 병력구조                   | 117 |
| 2.   | 미래 인력 소요 판단                  | 120 |
| 3.   | 미래 국방예산 소요 판단                | 131 |
| IV.  | 결론                           | 140 |
| 제4장  | 경제-안보 연계전략: 자유무역협정을 중심으로     |     |
|      | <b>이승주</b>                   | 147 |
| I.   | 서론                           | 147 |
| II.  | 이론적 논의: 경제-안보 연계의 동기와 유형     | 149 |
| 1.   | 경제-안보 연계의 이론적 배경             | 149 |
| 2.   | FTA와 경제-안보 연계                | 150 |
| III. | 미국의 경제-안보 연계 전략              | 154 |
| IV.  | 일본의 경제-안보 연계 전략              | 159 |
| V.   | 한국의 경제-안보 연계 전략              | 164 |
| VI.  | 결론                           | 171 |

**제3부** **신흥안보의 중장기 미래전략** 177

|  |     |
|--|-----|
| 제5장 환경안보의 미래전략   <b>신범식</b>                      | 179 |
| I. 문제제기  | 179 |
| II. 기후변화와 국제적 대응: 현황과 주요 도전                      | 182 |
| 1. 교토체제를 넘어 포스트교코체제로                             | 182 |
| 2) 세계경제포럼의 지구위험보고서 (2007-2015)로 본<br>위험 요소들의 연계성 | 190 |
| 3. 기후변화 대응체제의 쟁점과 미래                             | 193 |
| III. 한국 환경 및 기후변화 외교의 발전과 한계                     | 202 |
| IV. 한국 환경 및 기후변화 외교의 과제                          | 212 |
| 제6장 사이버안보의 국제정치와 미래전략   <b>조화순</b>               | 224 |
| I. 문제제기  | 224 |
| II. 사이버공격과 사이버안보                                 | 227 |
| III. 사이버안보 전략                                    | 236 |
| IV. 사이버안보의 국제규범                                  | 243 |
| V. 사이버억지와 그 한계                                   | 250 |

**제4부** **중장기 미래전략의 방향모색** 257

|  |     |
|--|-----|
| 제7장 한반도 통일의 미래전략   <b>황지환</b>          | 259 |
| I. 머리말                                 | 259 |
| II. 북한 급변상황 및 한반도 통일의 미래전략             | 262 |
| 1. 동독의 급변상황과 독일 통일의 과정                 | 263 |
| 2. 북한 급변상황과 주변 강대국들의 전략                | 266 |
| 3. 북한 급변상황에 대한 한국의 대응전략                | 271 |
| III. 북한의 정상국가화 및 한반도 통일의 미래전략          | 273 |
| 1. 북한의 전략적 선택변화와 개혁개방                  | 274 |
| 2. 북한의 정상국가화 이행과 한반도 평화                | 280 |
| 3. 북한의 정상국가화와 한반도 통일단계로의 이행            | 285 |
| IV. 맺음말                                | 287 |
| 제8장 국가안보의 새로운 방향모색   <b>라운드 테이블 토론</b> | 293 |

국가의 미래를 내다본다는 차원에서, 향후 10-30년은 한국에게 큰 도전의 시기가 될 것 같다. 무엇보다도 중국의 부상에 따라 향후 10-30년 동안 미-중관계가 재조정되면서 동아시아 권력구조가 크게 변화할 가능성이 보인다. 남북한 관계도 지금과 같은 냉담과 긴장 상태가 한없이 계속될 것 같지는 않다. 오히려 우려스러운 부분은 누구도 원치 않게 사태가 급변하는 형태로 변화가 발생하는 것이다. 좀 더 시야를 넓혀서 세계를 보아도 한국에 닥쳐오는 도전은 늘어나고 있다. 다양한 초국적 난제들을 놓고 모색되는 글로벌 거버넌스의 장에 한국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도전에 맞서는 한국도 이제 중전과 같은 개도국은 아니다. 해방 이후 70년의 성장을 바탕으로 물질적 국력이라는 면에서 대략 세계 10-15위권의 중견국이 되었다. IT나 인터넷 분야에서 이룩한 한국 기업들의 성공이나 TV드라마와 K팝을 앞세운 한류 열풍도 높아진 국가 브랜드를 엿보게 한다. 이렇게 커진 국력을 바탕으로 한국은 최근 국제사회에서 중견국 외교의 역량을 발휘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이 책의 제목인 '한국의 중장기 미래전략'이라는

말이 그리 생소하게 들리지만은 않는다. 사실 현실 국제정치의 장에서 중장기 전략에 대한 고민은 개도국들의 몫은 아니었다. 개도국들도 고민을 할 수는 있었겠지만 그러한 고민이 낳을 행동의 결과가 주변 국가들의 주목받을 정도로 큰 관심을 끌지는 못했다. 오히려 중장기 전략은 일정 정도 이상의 국력을 보유한 국가들이 자국의 의지를 주변 국가들과 미래의 질서에 투영하고 싶을 때 흔히 꺼내드는 카드였다. 이렇게 보면 지금 중장기 전략을 논한다는 것 자체가 한국이 이제는 더 이상 개도국이 아니라는 사실의 반증인 셈이다. 국내적 역량과 국제적 위상이 상승하면서, 이제는 강대국들이 닦아 놓은 길을 그들의 손을 잡고 더듬듯이 따라가는 근시안적 대응을 넘어서, 중견국의 시력에 맞는 도수의 천리경을 쓰고 자신의 미래를 스스로 고민하는 '중장기 전략'을 논할 필요성이 생겼다고 해야 할 것이다.

사실 개념적으로 보아 '중장기'라는 말이 얼마만큼의 기간을 의미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논하기는 쉽지 않다. 5년, 10년, 30년, 100년 등 논자에 따라서 각기 다른 기준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적어도 현재의 시점에서 한국이 '중장기'라는 말을 꺼내든 이유는, 현 정권 내에서 승부를 보거나 5년 단위의 정권교체 주기에 맞추어 차기를 준비하자는 뜻은 분명 아니다. 오히려 다음 세대에게 닥칠 일을 현 세대가 미리 고민하고 준비하겠다는, 적어도 한 세대, 즉 30년의 미래를 준비하겠다는 발상을 바탕으로 둔다. 더 길게는 식민지의 길로 접어들었던 100여 년 전을 뒤돌아보면서 앞으로 한 세기를 과거와는 다르게 만들어가겠다는 역사적 각성이 담겨 있다고도 볼 수 있다. 이러한 백년대계를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한 세대를 어떻게 꾸려 나가야 할지, 그리고 그러한 미래를 위해서 오늘과 내일은 무엇을 할지에 대한 중층적인 고민을 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중장기 전략의 고민 중에서 이 책의 필자들이 주목한 주제는

‘국가안보’의 미래이다. 사실 오늘날 세계정치의 양상을 보면 국가안보라는 말에서 ‘국가’와 ‘안보’의 내용이 모두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안보의 단위라는 차원에서 일국 차원의 안보뿐만 아니라 국가의 경계를 넘어서 발생하는 지역안보와 글로벌 안보를 모두 고려해야만 하는 시대가 되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서는 안보 행위자의 성격도 전통적인 국민국가라기보다는 ‘네이션(nation)’의 경계를 안과 밖으로 넘나들며 새롭게 모색되는 ‘국가(state)’이다. 안보의 영역이라는 차원에서도 오늘날 안보문제의 주관심사는 군사안보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환경, 에너지, 식량, 원자력, 전염병, 컴퓨터 해킹 등으로부터 이민이나 인구, 인권 및 사회통합의 문제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요소들이 모두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미래의 ‘국가안보’를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안보개념의 틀에만 갇혀 있지 말고 문제의 성격 자체를 새롭게 보려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책의 필자들이 국가안보의 미래와 관련하여 던지는 개념적 화두는 ‘신흥안보(emerging security)’이다. 사실 신흥안보의 이슈들은, 종전에는 전통안보와 대비된다는 의미로, 비전통안보(non-traditional security)라는 이름으로 다루어졌다. 그러나 비전통안보라는 말은 새로운 안보 이슈의 성격을 전통안보와의 관계 속에서 상대화시켜서 보게 하고, 그 결과로 전통적인 것에 비해 부차적인 의미를 갖는 안보 이슈라는 느낌을 준다. 마치 군사안보를 위주로 한 전통안보가 상위에 있고 그 외의 나머지 안보 이슈들이 그 하위에 있다는 인상을 줄 우려가 다분히 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당면한 새로운 안보 이슈들은 그렇게 주변적인 문제로 치부하기에는 너무나도 빠르게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요인으로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 책의 필자들은 미래의 안보를 부르는

용어 자체에 대한 고민을 시작하게 되었고, 결국 ‘신흥안보’라는 개념을 고안하게 되었다.

신흥안보라는 말은 단순히 새롭다는 의미만 담고 있지는 않다. 오히려 오늘날 세계정치에서 관찰되는 변화를 반영하려는 다의적인 의도를 담고 있다. 전통적인 군사안보의 영역을 넘어서는 새로운 안보 이슈들이 문제시 되고, 위협의 발생이 국가의 경계 내가 아니라 국가를 넘어서 초국적으로 이루어지며, 그것을 해결하는 데에도 단순히 국가 행위자들만 나서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비국가 행위자들까지도 참여하는 새로운 방식을 추구하고, 안보문제를 해결해나가는 전략 자체도 물질적 자원에 주로 의존하는 전통적인 방식이 아니라 좀 더 스마트하게 관계적인 맥락을 활용해야 한다는, 다층적인 의미에서 ‘신흥’이다. 국내외 학계의 현황을 돌아볼 때, 이상에서 설명한 개념적인 의미를 염두에 두고 ‘신흥안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이 책에서 처음 시도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갈 점은, 이 책의 필자들이 국가안보의 변화를 논하는 시각이 쉽게 말하는 바와 같이 ‘전통안보로부터 신흥안보로의’ 단순한 이행을 논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오히려 이 책의 필자들이 취하고 있는 입장은 전통안보와 신흥안보가 복합되는 맥락에서 21세기 국가안보의 미래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한국의 중장기 전략이 탐구해야 할 국가안보의 미래는 전통안보 일색에서 전통안보와 신흥안보가 겹치고 엮이는 ‘복합안보’의 개념으로 파악하는 것이 맞을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이러한 전통안보와 신흥안보의 복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이며, 그러한 과정에서 창발(emergence)하는 복합안보의 내용은 무엇일까? 이 책에 담긴 7편의 논문과 마지막에 실은 라운드 테이블 토론은 이러한 국가안보 패러다임의 변화를 향후 한국이 추구할 중장기 미래전

략의 시각에서 다루었다. 특히 앞으로 한국이 추구해야 할 외교안보 전략 과제, 군사안보나 경제안보와 관련된 현실의 변화, 중장기적으로 새롭게 당면하게 될 신흥안보 이슈들의 부상, 그리고 한반도의 관점에서 보는 국가안보의 새로운 방향이라는 네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제1부 '외교안보의 중장기 미래전략'에는 현재 한국이 글로벌 및 동아시아 차원에서 당면하고 있는 외교안보 전략의 과제를 중견국 외교와 유엔 안보외교의 시각에서 다룬 두 편의 논문을 실었다.

제1장 '중장기 외교안보 전략의 과제'는 중견국 한국이 추구할 향후 중장기 전략의 방향과 외교안보 전략의 과제들을 이론적 시각에서 짚어보았다. 오늘날 한국은 향후 세계정치의 변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차원에서 중견국으로서의 위상 변화에 걸맞은 중장기 외교안보 전략을 모색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제1장은 이러한 외교안보 전략 과제들을 세 가지 측면에서 제시하였다. 첫째, 한국의 중장기 외교안보 전략은 글로벌 및 동아시아에서 형성된 복합구조의 속성을 파악하고 그 안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구조적 위치'를 제대로 이해하고 적절히 활용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둘째, 한국의 중장기 외교안보 전략은 부국강병을 위한 자원권력의 추구전략에만 집착할 것이 아니라 글로벌 및 동아시아에서 형성되는 복합구조 속에서 작동하는 신흥권력의 다차원적 메커니즘을 잘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끝으로, 한국의 중장기 외교안보 전략은, 과거 외교안보 전략의 전제가 되었던 개도국의 협소한 국가이익 규정이나 근대 국민국가의 모델을 넘어서, 새로이 변화하는 세계정치의 환경과 높아진 한국의 위상을 고려한 열린 국익의 발상과 미래의 국가모델을 추구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종합적으로 제1장은 한국의 중장기 외교안보 전략이 앞으로 30년에 걸쳐서 그 진면목이 본격적으로 드러날 것으로 보이는 '네트워크 세

계정치'의 부상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제2장 '유엔 안보외교의 미래전략'은 향후 30년 동안 한국이 당면해야 할 가장 중요한 외교의 문제로서 유엔 안보외교의 주제를 다루었다. 특히 세계안보와 평화를 유지·관리하기 위한 유엔의 '아이디어'와 대응·접근방식들이 어떻게 발전되어 왔고 실제로 어떠한 성과와 한계를 가져왔는지를 검토하였다. 안보리의 결의안 분석을 통하여 냉전기 초강대국 미국과 소련의 대결 속에서 나타난 안보리 거부권 행태, 그리고 향후 미국과 중국 및 러시아의 힘겨루기를 분석하였다. 더 나아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향후 국제 위협과 분쟁예방 및 해결을 위한 보다 강력하고 타당하며 적실성 있고 효과적인 유엔의 역할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살펴보았다. 또한 제2장은 유엔 및 국제사회에서 중견국의 역할이 제반 분쟁에 대한 중재자(good office)적 역할, 경제적·윤리적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서 모범적 행위자로서의 역량을 발휘하는 데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역할을 조명함으로써 향후 '신도 중견국 한국'의 장기적인 외교전략을 엿볼 수 있다는 것이다. 사실 한국은 경제개발과 민주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성공적으로 이루어서 많은 개도국의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러한 한국이 어떻게 동북아 4강에 둘러싸인 지정학적 한계를 극복하고, 유엔이나 국제사회의 평화활동에 기여하며, 서구와 비서구를 잇는 국제규범을 추구할 수 있을지가 성공적인 중견국 외교를 이끌어가는 관건이 될 것이다. 요컨대 한국의 중견국 외교는 특정 지역이나 이슈에 얽매이지 말고, 양자적·다자적 협력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중견국 외교의 모델을 창출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한국의 유엔안보외교도 이러한 맥락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제2부 '군사·경제안보의 변환과 복합'에는 근대 국제정치의 주요 논제인 국방과 경제의 문제가 21세기 세계정치의 초국적인 신흥 이슈와 어떻게

연계되는지를 초고령·저출산의 인구문제와 지구화 시대의 자유무역협정의 사례를 검토한 두 논문을 실었다.

제3장 ‘국방안보의 미래: 초고령·저출산 인구문제를 중심으로’는 중장기 전략의 시각에서 인구문제가 미래 국방안보에 주는 의미를 살펴보았다. 동북아시아의 경쟁적 안보구도, 북한의 위협, 그리고 전시작전권 전환을 통해 한-미동맹 변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초저출산·초고령화는 안보와 국방의 영역에도 극복하기 쉽지 않은 여러 가지 도전을 제기한다. 초저출산은 국방에 필요한 병력 수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또한 초고령화는 현재 일반병 위주의 군 구조에서 군 간부 증가와 첨단 무기 체제 도입을 수반하는 군 구조의 질적 변화를 요구한다. 문제는 초저출산·초고령화가 국방비 증가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우선 저출산은 산업인구를 감소시킴으로써 세수의 감소를 가져와 궁극적으로 정부재정 확보에 어려움을 초래한다. 또한 산업인구 감소는 경제성장률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저성장과 조세수입 감소에 따른 정부재정 감소는 국방비 감소로 이어진다. 한편, 인구의 고령화는 복지에 대한 수요 증대로 이어져 정부재정 지출에서 복지비용의 비중이 점차 커질 수밖에 없다. 국방에 대한 요구와 복지에 대한 요구가 앞으로 더욱 서로 상충할 것이라고 예상된다. 이와 같이 초저출산·초고령화는 안보에 있어 말 그대로 어느 쪽을 선택해도 문제점이 발생하는 하나의 커다란 딜레마로 한국을 빠져들게 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제3장의 주장은 국방개혁을 보다 시급하게, 그리고 다각적이고 입체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제4장 ‘경제-안보 연계전략: 자유무역협정을 중심으로’는 앞으로 한국의 중장기 전략이 경제외교를 안보문제와 연계하는 방향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경제-안보의 연계라는 관점에서 볼 때, 동아시아 지역질

서의 구성 원리는 다른 지역, 특히 유럽에 비해 독특하다. 냉전기 동아시아의 지역 아키텍처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양자 동맹의 네트워크적 성격이 강했고, 경제적 상호의존 역시 동맹국에 대한 시혜적 성격이 있었다는 점에서 지역 차원의 다자체제를 형성하였다. 1990년대 냉전 종식, 세계화의 진전, 중국의 부상 등 동아시아 지역질서의 변화를 촉진하는 요인들이 속속 등장하면서 미국 중심의 경제-안보 연계체제에도 변화의 압력이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미국을 허브(hub)로, 동아시아 국가들을 스포크(spoke)로 하는 전후 안보 체제는 신흥 강대국의 부상, 안보 기구의 지속적 위기, 비국가 행위자의 부상 등으로 인해 유용성이 감소하게 되었다. 주요국들이 탈냉전 시대에 부합하는 전략적 협상의 새로운 유형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경제-안보 연계 현상이 강화되기 시작했다. 2010년 이후 동아시아 국가들이 TPP 및 RCEP와 같은 거대 FTA로 정책의 중심을 빠르게 이동시키고 있는데 이로 인해 경제-안보 연계 현상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 거대 FTA에 나타난 경제-안보 연계가 동아시아 지역 협력의 제도화에 미치는 영향은 양면적이다. FTA를 통한 제도화된 협력은 안보에 대한 우려를 상당 부분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그러나 경제-안보 연계현상의 근저에는 미국과 중국의 권력 변화와 그에 따른 지구적·지역적 차원의 새로운 아키텍처 수립을 위한 경쟁이 작용하고 있다. 거대 FTA 협상의 대두 과정에서 발견되는 경제-안보 연계가 지역 제도의 동학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제3부 ‘신흥안보의 중장기 미래전략’에는 이 책에서 한국의 중장기 미래전략의 방향으로 설정한 신흥안보 분야 중에서 최근 가장 큰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두 가지 주제, 즉 환경안보와 사이버안보의 문제를 다룬 두 편의 논문을 담았다.

제5장 '환경안보의 미래전략'은 1980년대 중반 이후 주요한 국제적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는 환경문제를 중장기 미래전략의 시각에서 살펴보았다. 21세기 세계정치의 쟁점으로 등장한 기후변화 문제는 한 국가의 안보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지역적 및 지구적 차원에서 중층적이며 복합적인 접근을 통해서만 해결이 가능한 사안이라는 특징을 갖는다. 이와 같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기후변화 대응체제의 기본틀을 만드는 노력이 범지구적 차원에서 진행되는 중이다. 특히 교토의정서를 대신할 새로운 기후 협약이 2015년 말 성공적으로 합의될 것인지, 또한 그 실행을 둘러싼 경제적·사회적 효과는 어떠한지에 대한 다층적인 우려와 도전이 국내외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한국은 환경문제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된 이후 최근 기후변화 대응체제 협상과정에서 외교력과 국제무대에서 가시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 왔다. 하지만 한국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대내외 정책은 이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그간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의 중간자적 입지를 활용하여 커다란 부담은 회피하면서 자신의 중재자적 가치를 높이려는 외교정책이 일정기간 통했다. 하지만 이제 이와 같은 입지를 활용할 수 있었던 국제적 환경이 변화하고 있다. 이제 본격적인 기후변화에 대한 '감축'과 '적응'을 위하여 과감한 국내적 체질개선을 추진하여야 한다. 2010년대에 전개되고 있는 기후변화 대응체제 구축을 둘러싼 국가 간 협력과 경쟁은 적어도 지난 반세기 동안 지구 정치의 중요한 축으로 급성장한 환경 영역에서의 지구적 거버넌스를 재편하고 환경 영역의 의제가 다른 영역과 연계되는 방식을 결정하는 중요한 분야가 될 것임에 틀림없다.

제6장 '사이버안보의 국제정치와 미래전략'은 최근 초국적 차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이버테러와 사이버공격이 지니는 안보적 의미를 중장기 미래전략의 시각에서 다루었다. 2000년대 후반 이후 전 세계적으로 보안에

취약한 특정 분야의 민간기업과 기관을 대상으로 한 해킹과 사이버공격뿐만 아니라 적대국가에 대한 공격의 한 방편으로 사이버공격을 감행하고 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을 공격한 올림픽 게임 작전, 미국의 소니 영화사에 대한 북한의 해킹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사이버공간을 이용해 국가의 중요 기간시설을 공격하는 사이버전쟁은 더 이상 공상과학 영화에 등장하는 이야기가 아니다. 사이버안보는 컴퓨터와 네트워크의 발전을 배경으로 사이버공간을 이용해 발생할 수 있는 전쟁, 테러, 위협 등 새로운 차원의 안보 위협을 의미한다. 전 세계가 급격히 인터넷과 소셜 네트워크로 연결되고 사이버공간을 이용한 정보 이동과 교류가 활발한 네트워크 사회에서 각 국가가 사이버공간의 위협을 완전히 통제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더 어려운 문제는 사이버공격은 안보의 전통적 대상이었던 국가뿐만 아니라 개인, 테러리스트, 국제조직 등 비영토적 주체도 위협을 가할 수 있어 사이버안보를 수호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제6장은, 사이버안보가 국제사회에 등장하고 있는 새로운 안보 이슈라는 관점에서 사이버안보를 위협하는 사례들을 통해 그 실태를 파악한 후 사이버공간의 다양한 위협에 대해 주요 국가들이 어떻게 제도적, 정책적으로 대응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또한 초국경적인 사이버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한 논의를 통해 사이버안보를 위한 글로벌 거버넌스의 한계를 지적하였다.

제4부 '중장기 미래전략의 방향모색'에서는 이 책에서 펼친 중장기 미래전략의 방향에 대한 논의를 한반도 통일이라는 현안에 초점을 맞추어 검토한 논문과 21세기 세계정치에서 발생하는 국가안보의 패러다임 변환에 대한 전문가들의 라운드 테이블 토론을 담았다.

제7장 '한반도 통일의 미래전략'은 통일과 관련된 한반도의 미래를 북



한의 정상국가화, 급변상황, 현상유지 등 3가지 시나리오로 설정하고 논의를 시작하였다. 그러나 북한의 현상유지 시나리오는 한반도가 상당기간 동안 통일되지 않는 상황을 의미하기 때문에 한반도 통일의 미래전략으로서 북한 급변상황과 정상국가화라는 두 가지 과정에 초점을 맞추었다. 제7장에서 상정하는 한반도 통일을 위한 최상의 시나리오는 북한 정권 스스로 핵무기를 포기하고 중국이나 베트남처럼 개혁개방 정책을 추구하여 국제사회의 대규모 투자를 받아들이면서 경제발전에 집중하는 북한 정상국가화의 과정이다. 현재의 북한정권과는 전혀 다른 차원으로 북한체제의 성격이 변화하게 되는 경우 한반도 통일에 더욱 우호적인 환경이 될 것임은 분명하다. 또 다른 통일의 시나리오는 북한 급변상황과 이를 통한 통일의 과정이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북한체제의 불안정이 급변상황으로 전환될 경우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 이 경우 독일 통일의 경우처럼 급변상황을 어떻게 한반도 통일로 연결시킬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제7장이 내리는 제언은 한반도 통일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강대국의 일방적인 영향성을 억지하고 국제사회가 한반도의 통일의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아울러 북한 급변상황이나 정상국가화의 어떤 경우에도 북한 주민들이 한국과의 통합을 원하지 않고 독립적인 국가건설을 시도한다면 한반도 통일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제8장 ‘라운드 테이블 토론: 국가안보의 새로운 방향모색’에는 한국의 중장기 미래전략과 국가안보의 새로운 방향모색이라는 주제로 이 책의 필자들과 향후 연구주제를 발전시키는 작업에 참여할 전문가들이 함께 벌인 토론 내용을 정리하여 담았다. 이 라운드 테이블 토론에서 제기한 문제는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 중장기 미래전략의 총론을 제기한다는 차원에서

지금 한국은 중장기 미래전략이 필요한가, 왜 필요한가, 만약에 필요하다면 어떤 미래전략이 필요한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둘째, 향후 한국이 중장기 미래전략을 추구함에 있어서 국가안보의 문제가 차지하는 위상에 대해서 토론하였다. 특히 중장기 미래전략의 과제를 풀어어나가는 데 있어서 국가안보 어젠다가 차지하는 위상이 이 책에 실린 7편의 논문 내용에 제대로 반영되었는지에 대해서 평가하였다. 끝으로, 향후 중장기 미래전략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국가안보 패러다임의 변화와 연속성에 관하여 토론하였다. 한국의 전략은 국가안보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는지의 주제로 토론하는 과정에서 환경, 원자력, 보건, 인권, 문화정체성, 사이버안보, 인구, 에너지·식량, 이민, 통일 후 사회통합, 경제안보 등과 같은 신흥안보문제의 위상을 설정하였으며, 이러한 신흥안보의 문제가 전통적인 안보문제와 만나게 되는 복합 지점에 대한 토론을 벌였다. 라운드 테이블 토론의 말미에 이루어진 논의는, 이 책의 필자들이 향후 진행할 확장연구의 일환으로서 ‘신흥안보의 국가전략’이라는 주제에 좀 더 본격적으로 초점을 맞추겠다는 기약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이 책이 나오기까지 많은 분들의 도움을 얻었다. 무엇보다도 중장기 미래전략 연구에 가까이 동참해 주신 필자 선생님들께 감사드린다. 지난 1년 동안 함께 만나 벌였던 발표와 토론은 이 책이 세상에 나올 수 있었던 토양이었다. 또한 1년차 연구를 평가하고 2년차 연구를 기약하는 라운드 테이블 토론에 참여해 주신 배영자(건국대), 조홍식(숭실대), 김현준(고려대), 이태동(고려대), 정혜주(고려대) 등 다섯 분 교수님께도 감사드린다. 이분들은 현재 기획하고 있는 다음 책에 필자로서 참여하실 예정이다. 라운드 테이블의 토론내용을 녹취하고 글로 옮기는 작업을 도와준 조문규, 김유정 두 대학원생들

에게도 고마움을 전한다. 또한 성심껏 이 책의 출판을 맡아주신 도서출판  
인간사랑 관계자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2015년 7월 31일  
필자들의 뜻을 모아  
김상배



## 제1부 외교안보의 중장기 미래전략